



자격증 신청 경쟁 치열... 애타는 취준생

토익 고사장 없어 서울로 '원정 토익' 사례 속출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 설명할 길 없어" 한숨만

"취업 이전 '공백기'에 뒤흔리는 회사의 질문에 대답할 길이 자격증 취득밖에 없는데... 시험 합격도 아니고 시험 신청부터가 어려운 현실이 씁쓸해요."

성모(32·제주시 화북동)씨는 5년간의 백수 생활 끝에 지난해 3월 도내 한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해 출근 일만을 기다리다 회사 측으로부터 '입사 취소'를 통보받았다. 재차 취업준비생이 된 성씨는 마음을 다잡고 각종 자격증 준비에 몰입하고 있지만, 토익 등 자격증 시험 준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성씨는 "안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관문이 좁은데 당장 토익 점수는 만조됐고, 고사장은 없거나 겨우 열린 곳은 꽂혔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 속상한 마음을 겨우 주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성씨처럼 최종 합격 후 '입사 취소'를 통보받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는 데다,

각종 어학·자격증 시험 준비에도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취업준비생들은 입사 지원의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 토익 등 어학 시험을 포함해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시험 신청 경쟁에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익은 한때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개방된 고사장이

없어 수험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서울에 '원정 토익'을 보러 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등 몇 군데가 개방했지만, 일찍이 마감되는 등 여전히 신청 자체가 어려워 원정 토익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학교 대관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토익위원회의 문의를 거절했었다"며 "현재 1월 24일, 2월 7일에 열리는 토익시험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일찍이 마감됐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 한 해를 아예 날려버렸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4년 간 승무원을 준비해 온 송모(28·여·서귀포시 대정읍)씨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정보 수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그룹 스터디나 대외 활동에 부담이 가서 할 수 있는게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를 회사에서 과연 이해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겨울 수선화 '활짝' 18일 제주시 한림공원 내에 수선화가 만개해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노인학대 신고 급증... 실제 사례는 소폭 감소

신고건수 2015년 125건서 2019년 666건 5.3배 늘어 경로당·사회 단체 홍보로 피해·가해자 인식 개선

최근 제주지역 노인학대 관련 신고 건이 타지역에 견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도내에서 이뤄진 노인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2015년 125건(1000명 기준 신고접수율 1.5%) ▷2016년 152건(1.7%) ▷2017년 208건(2.2%) ▷2018년 607건(6.3%) ▷2019년 666건(6.6%)이다. 접수건수는 5년새 5.3배 급증했다.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의 신고접수율이 전국(평균 2.0%)에서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03건, 서귀포시 263건이며 접수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7.8%다. 노인인구는 10만397명으로 제주인구 67만989명 가운데 15.0%(전국평균 15.5%)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2018년 158건, 2019년 146건, 2020년 11월말 기준 115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경로당이나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의 홍보 확대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인식 개선이 이뤄진 결과"라며 "최근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나 상담건수는 많이 늘고

있으나, 실제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로 그동안 언어폭력에 대해 숨겼지만 최근에는 이를 표면화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근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인한 노인학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국 상황에 견줘 비슷한 양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지난해 현장 방문을 대신해 SNS나 신문,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시설 쉼터 운영을 비롯해 의료 및 법률자문,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탁기기자 haru@ihalla.com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에 음주 운전도 '뚝'... 74% 감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2건(면허 정지 수준 17건, 면허 취소 수준 25건)이다. 지난해 동기만 163건(면허 정지 수준 84건, 면허 취소 수준 79건) 대비 무려 74.2%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음주운전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다혜기자



2020년 제주 119구급대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14.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하는 구급대원들의 모습.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심정지환자 74명 119구급차서 되살아나 제주 119구급대 '자발순환 회복률' 전국 1위

제주 119구급대 '자발순환 회복률'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소생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2018년 9.7%(43명)에서 2019년 13.7%(56명), 지난해 14.3%(74명)으로 증가 추세다.

제주 119구급대가 최근 3년간 173명의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자발순환 회복률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10.8%)보다 3.5% 높다.

제주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전국 소방본부 대상 소방청 주관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평가에서도 20점 만점에 20점을 획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소방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대원이 아닌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최초 목격자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구급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굴삭기로 ATM 파손·돈 훔치려던 30대 검거

16일 새벽 시민 신고로 달미

굴삭기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쯤 굴삭기를 이용해 표선면 성읍

리에 있는 모 식당 옆 ATM을 파손한 혐의다.

당시 ATM 안에는 현금이 있었으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사용한 굴삭기도 성산읍에서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빛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현영준기자

"왜 문 안 열어줘" 집 문 부순 40대 벌금형

동거녀가 집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 등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동거녀 집에 찾아가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창고에 보관중이던 둔기로 출입문 손잡이와 창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등록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탕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